

'예산 2조' 광주복지 빅데이터 구축한다

'광주형 복지모델' 4개 분야 70개 과제 마스터플랜 확정 사회서비스원 설립·통합돌봄 커뮤니티 케어 정책도 추진

광주시는 최근 광주혁신추진위원회가 권고한 '광주형 복지모델' 구축을 위한 4대 분야 70개 세부과제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광주시는 23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민·관·정 복지협치위원회, 시민 등 150여 명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복지혁신 추진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복지혁신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복지정책 분야로 인구추이, 복지수요, 총량, 재정 등에 대한 종합적 진단·분석을 통

해 수요 대비 공급의 적정 여부와 복지재정 등 광주복지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광주복지 빅데이터는 '광주복지통합 전산망'으로 연령별, 유형별 복지수요와 사업별, 영역별 서비스 제공기관(시설) 현황, 지역별 분포현황, 복지 서비스 및 일자리 정보 등을 총 망라한다.

광주시는 또 정책분야 과제인 광주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 복지모델인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추진한다. 광주복지재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인건강타운 등 시설관리 업무 분

리 및 정책·연구기능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광주시는 과제추진에 대한 실행력 확보를 위해 내년 1월1일자로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 내에 복지혁신팀과 감사위원회 내 사회복지감사팀을 신설한다.

복지시설 분야는 공공성 제고와 자원배분의 적정성을 위해 복지수요와 인구추이 등에 따라 분야별, 종류별, 지역별 적정 시설규모를 설정하는 복지 총량제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광주복지실태와 다른 시도 복지현황 등 비교분석을 통해 광주시 복지수요·공급의 적정 기준을 마련하고, 복지시설과 단체 난립을 막기 위해 지원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복지시설의 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복지종사자 분야는 복지공무원 대상 복지정책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시설 책임자와 신규 채용자에 대한 사전 직무교육을 추진한다.

복지혁신과제 이행을 위해 광주시는 2020년 본예산에 사회서비스원 설립, 종사자 채용개선 등 사업비 163억8100만원을 확보했다.

김일용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장은 "복지예산이 시 전체 예산의 약 40%인 2조원을 상회하고 있어 복지 실태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광주복지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혁신추진위가 권고한 70개 세부 과제들을 추진해 광주형 복지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이세돌 9단이 지난 21일 전남 신안군 엘도라도리조트에서 '바디프랜드 브레인마사지' 이세돌 vs 한돌' 은퇴 대국 제3국을 마친 뒤 어머니 박영례 씨로부터 꽃다발을 받으며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굿바이 이세돌

AI와 은퇴 대국 어렵게 패배...최종 1승2패
24년 4개월 파란만장 프로기사 생활 마감

"바둑에서는 정말 좋은 스승님이셨다." 이세돌(36)이 지난 21일 바둑 인공 지능 '한돌'과 치른 최종 은퇴 대국에서 어렵게 패배한 뒤 인터뷰에서 아버지 고(故) 이수오씨를 떠올렸다. 그는 "9살까 지 아버지 밑에서 배웠다. 기본이 중요한데, 힘든 와중에서도 기본을 잘 잡아주셔서 제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이세돌은 어려운 상황에서 한돌과 은퇴 대국을 한 것에 감사하다면서 "NHN에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한 것 같아서 죄송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세돌은 기자회견에서 한돌이 아직 중국 인공지능과 비교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제가 중국, 일본에 가서 바둑을 둘 것이라는 말이 있더라. 그럴 거면 제가 은퇴를 안 한다"라고 웃으면서 "진짜 공식 대국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세상일은 모르니 50살이 되면 다시 바둑을 둘까 모르겠다. 최소한 많은 시간이 지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돌은 앞서 21일 전남 신안군 증도 엘도라도 리조트에서 열린 NHN 바둑 AI 한돌과 '바디프랜드 브레인마사지' 이세돌 vs 한돌' 치수고지기 3번기 최종 3국에서 180수 만에 불계패했다. 이세돌은 지난 1국에서 흑으로 2점을 먼저 놓는 접바둑으로 불이 불계승을 거뒀다. 하지만 호선으로 맞붙은 2국에선 초반 실수를 뒤집지 못하고 불계패했다. 이날 경기는 치수를 다시 2점에 팀 7집반으로 조정된 채 진행됐다.

이날 이세돌은 1국과 마찬가지로 세

귀를 차지했고 AI 한돌은 소목에서 두 칸 벌리며 출발했다. 이세돌은 초반부터 우하귀를 파고들며 전투를 유도, 치열한 수 싸움을 벌였다. 우하귀 접전에서 이세돌은 위기에 빠지기도 했으나 2선에 붙이는 묘수를 보이며 대마를 살려냈다. 그러나 AI 과정에서 하변 5점이 잡혀 불리해졌다. 우하귀에서 특정한 한돌은 우변과 우상귀를 정리한 뒤 좌상귀의 3·3을 파고들어서 다시 집을 쟁겼다. 세 귀를 들어가며 실리를 차지한 한돌은 90여 수쯤에 이르러 좌상귀에 이어 상변마저 죄송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세돌은 기자회견에서 한돌이 아직 중국 인공지능과 비교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제가 중국, 일본에 가서 바둑을 둘 것이라는 말이 있더라. 그럴 거면 제가 은퇴를 안 한다"라고 웃으면서 "진짜 공식 대국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세상일은 모르니 50살이 되면 다시 바둑을 둘까 모르겠다. 최소한 많은 시간이 지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돌은 앞서 21일 전남 신안군 증도 엘도라도 리조트에서 열린 NHN 바둑 AI 한돌과 '바디프랜드 브레인마사지' 이세돌 vs 한돌' 치수고지기 3번기 최종 3국에서 180수 만에 불계패했다. 이세돌은 지난 1국에서 흑으로 2점을 먼저 놓는 접바둑으로 불이 불계승을 거뒀다. 하지만 호선으로 맞붙은 2국에선 초반 실수를 뒤집지 못하고 불계패했다. 이날 경기는 치수를 다시 2점에 팀 7집반으로 조정된 채 진행됐다.

이날 이세돌은 1국과 마찬가지로 세

/윤현석 기자 chadol@

'제로페이' 1년...광주·전남 가맹점 전국 3.4% 불과

누적 결제건수 1% 그쳐...광전연 "홍보 강화·편의성 증진 등 실효성 제고 필요"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제로페이'가 도입된 지 1년을 맞았으나 아직까지 성과는 미미한 수준으로 향후 이용자 편의성 제고 등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올 초 광주 6곳, 전남 7곳 등을 시범상으로 지정하는 등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나 지난 10월 기준 가맹점 수는 전국 대비 3.4% 수준인 1만 284개 업체에 불과한 실정이다. 누적 결제건수 및 금액 또한 전국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 김진익·김현철 책임연구원은 '광전 리더스 인포' 제161호 '제로페이 도입 1년의 동향 및 개선방안'에서 "제로페이 가맹점 발굴 및 사용자 확대, 제로페이 이용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와 함께 이용편의성 증진 및 할인혜택 제공 등을 통한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전용결제시스템 제로페이 도입 1년 만에 전국적으로 약 31만개의 가맹점을 모집하고 2021년 100만 가맹점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페이시스템이 보편화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 단말기 제조업체, 금융기관, 가맹점들이 경쟁적으로 모바일 결제서비스 도입 및 확산을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중국은 낮은 수수료와 고객데이터 분석 등으로 통한 민간의 핀테크 혁명으로

모바일결제 시스템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QR코드 결제 도입으로 현금없는 사회 조성을 위해 정부가 낮은 비용으로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와 17개 지자체, 은행 및 민간 사업자가 협력해 계좌기반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해 올 초 전국 가맹점 모집을 시작으로 전국에 약 31만개의 제로페이 가맹점을 지정한 바 있다.

연구팀은 제로페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책 수혜자인 가맹점 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인 소비자들을 위한 차별화된 혜택이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 올해 최고 뉴스는 '한전공대 유치'

전남도정 10대 뉴스 설문 2위 블루이코노미시대 개막

전남도민은 올해의 전남 도정 뉴스로 '한전공대 유치'를 꼽았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9 전남도정 10대 뉴스' 인터넷 설문조사를 한 결과 총 설문 응답자 1407명 중 405명(28.8%)이 '한전공대 유치'를 꼽아 올해 전라남도의 최대 뉴스로 선정됐다.

설문조사는 올 한 해 동안 언론에 보도된 38개 주요 뉴스에 대해 10개 뉴스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12월 5일부터 11일 동안 진행됐다.

2위는 '새천년 전남의 미래발전 비전, 블루 이코노미 시대 개막'으로 378명(26.9%)이, 3위는 '전남도

2020년 국고, 사상 최초 7조원 돌파'로 352명(25%)이 응답했다.

그외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대한 민국 신성장축', '전남도 2019년 청렴도 평가, 최하위에서 2등급 수직상승', '전남도,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 '섬의 날 썸 페스티벌에 15만여 명 몰려 성황', '빛가람 에너지밸리 투자 유치 400개 기업 돌파', '국제농업박람회 관람객 51만명 대박', '전남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전국 1위' 등도 차례로 10대 뉴스에 올랐다.

1위 '한전공대 유치'는 전남의 에너지 산업 발전과 청년 인재양성에 대한 기대감이, 2위 '새천년 전남의 미래발전 비전 블루이코노미 시대 개막'은 전남의 새로운 발전 전략을 제시한 점이 높은 선택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윤현석 기자 chadol@

'낙지·쭈꾸미·참문어' 대량생산 길 연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갑오징어 등 두족류 양식 연구 매진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고소득 품종이면서 양식이 어려운 낙지, 쭈꾸미, 갑오징어, 참문어 등 두족류의 자원 증대를 위해 종자 생산 및 양식기술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22일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에 따르면 두족류는 머리에 다리가 달린 동물이며, 이 가운데 낙지, 쭈꾸미, 갑오징어, 문어 등은 지양갑장제 및 피로회복제 제품의 주성분인 타우린이 풍부하다.

하지만 국내 생산량보다 소비량이 많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실제로 2018년 기준 낙지 소비량은 4만1323t인데 수입량이 3만5598t으로 86.1%나 된다.

쭈꾸미는 3만4373t, 갑오징어 3만600t(89.0%)이고, 참문어는 1만3023t 가운데 6984t(53.6%), 문어류는 2만2417t 가운데 1만2673t(56.5%)에

달한다. 이 때문에 종자 생산 기술 개발 및 자원 증강이 절실하다.

이에 따라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2009년 낙지 종자 생산 기초시험을 시작으로 2013년 쭈꾸미 인공종자 생산, 2015년 갑오징어, 2017년 참문어로 연구 품종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자원량과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간 낙지 11만 5000마리, 쭈꾸미 192만 마리, 갑오징어 13만2000마리, 참문어 15만 마리 등 두족류 인공종자 231만7000마리를 생산해 무안, 신안, 완도 등 7개 시·군에 52회에 걸쳐 방류했다.

이에 따른 생산효과는 37억여원으로 추정된다. 또 자원 조성 외에도 방류효과 증대를 위한 연구와 효율적 자원관리 시험을 수행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2-4306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매도·교환

- 무안군 현경면 현화리 땅 238㎡ 전원주택 등 적합 7천만원
- 전원주택 적합 영광군 백수해안도 인근 1130㎡ 전방 총용 1억3천
- 서구 마곡동 도로점 땅 378㎡ 장기투자자 좋은 대지임 5억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땅 664㎡ 주택 124㎡ 4억3천
- 전북 부안군 백산면 소재지 상업지 706㎡ 무인텔 등 적합 교환 가능 2억
- 목포시 외남도(달동) 329평, 638평 투자전망치고 평당 23만원
- 영광군 염산면 신성리 땅 2648㎡ 주택 전용생활 적합 1억7천
- 함평군 손불면 산남리 땅 9143㎡ 집 67㎡ 귀농생활 적합 2억
- 별장 영산강 부근 나주시 다시면 화진리 땅 450㎡ 건평 110㎡ 매도 2억8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통시설·청고 공장 등 적합 6억
- 제주도 서귀포 강정동 3647㎡ 빌라 등 적합 25억 약국용 건물과 교환가능
- 담양군 금성면 석현리 915㎡ 창고·다세대 등 다용도 적합 2억9천
- 남구 덕남동 (노대동 노인건강타운) 부근 대지 652㎡ 남향 가격조정 가능 5억5천
- 남구 덕남동 신10000㎡ 사할·화가 화실·작가 작품 활동 적합 건물 67㎡ 5억

상가건물

- 서석동 조대방 4층상가 땅 405㎡ 건물 919㎡ 임대 보증금 6천 월 280, 12억
- 운암동 아파트상가(지하 205㎡) 매입 2억 창고 사무실 적합 은행7천 매도 1억6천
- 충장로 47㎡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 1200 매도 26억
- 산수동 공무원아파트부근 도로점 땅 305㎡ 건물 519㎡ 5전에 180 임대중 11억
- 동성동 상공회의소 뒤편 소방도점상가주택 땅 156㎡ 건물 140㎡ 4억2천
- 운암동 아파트 단지인근 땅 1124㎡ 건물 1733㎡ 전세 7천 월 680 임대 21억
- 유동 신축커피숍 대지 73㎡ 2층건물 30평 시설완비 은행 1억 매도·교환 3억6천
- 북구 임동 모델 땅 318㎡ 건물 5층 528㎡ 은행 2억3천 매도 6억천

특급물건

- 화순군 동면 서성계 무등산 밑 광주 인근 최고별장지역 은행 2·3억 있는 별장과 상가건물 리플로 내대지 등과 교환원, 매도는 5억·7억임
- 구례군 구례읍 서서천변(광의면) 11060㎡ 다세대 빌라·요양시설 적합 14억5천
- 나주시 봉황면 전원주택지 8307㎡ 위치·전망 총용 6억4천
- 나주시 내대동 상업지 959㎡ 오피스빌·다세대 적합 은행 6억 교환 가능 9억5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요양병원] 부지매매

[힐링센터]

- 풍암동, 화순 전대병원 10분거리
- 현재 한옥식당 및 찜질방
- 계획관리지역 약3000평 (용적률 40% / 100)
- 보존관리지역 약2500평 (편백나무숲, 산책로 조성가능)
- 매매가격 33억5천만원 (용20억포함)

한옥식당 임대

공장형 카페건물 임대

- 한옥식당용도: 현재 돼지갈비전문점 한식전문점 또는 채식부페 적합
- 숯가마 찜질방 용도
- 공장형카페 또는 대형 수산물 직판식당 적합
- 넓은주차장, 남평·화순 4차선 확장으로 접근성 용이
- 임대조건 상담 후 결정

소유자 직접 상담

010-7570-7525 (남평읍 풍림리)

광주시민을 위한~ 2020년 부동산시장 전망과 "완전정복 세미나"

시기가 변하면 투자전략도 변해야 한다.
혼란기시대에 부동산 투자에 정곡을 찌르는 알찬강의!
2020년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효과적인 투자전략을 찾을 수 있는 특별강좌를 개최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강사 정영수 경영학박사 (부동산마케팅 전공)

- 한국부동산정보연구소장, (사)대한부동산학회 광주, 전남지부장
- 전남대 경영연구소 전임연구원, 전남대 20년 부동산강사
- 한국생산성본부(KPC) 위촉교수, 공무원연수원 등 초청강의

◆ 일시: 2019년 12월 27일(금) 14시~16시
◆ 장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61-7 5-18기념관(주차장 완비)
◆ 후원: (재)한국산업교육원, (주)토담건설
◆ 특전: 참가자 추첨 후 정관장 홍삼, 전기스토브, 햅쌀 등 증정
※ 선착순 99명 전화접수 마감

전화 062) 376-7605 010-9911-7605